

2018년 3월 16일

emerics@kiep.go.kr

스리랑카, 불교도-이슬람교도 충돌로 비상사태 선포



©REUTERS

스리랑카는 불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충돌로 인해 열흘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 지난 3월 6일, 스리랑카 정부는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폭력사태가 격화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함.
 -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과 내각은 최근 중부 캔디(Kandy) 지역에서 벌어진 종교·민족 간 폭력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열흘간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 지난 3월 4일, 캔디 지역에서 싱할라족(Sinhalese) 트럭 운전사가 무슬림 주민들과 시비 끝에 맞아 숨지면서 종교·민족 간 폭력사태가 촉발됐음.
 - 지난 3월 5일, 싱할라족 주민들은 이슬람 신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집단 폭력을 행사했음.
 - 이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이슬람 신자들의 집과 상점 10여 채가 불타고 1명 이상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캔디지역에 통행금지령을 선포하고 경찰특공대를 배치했지만, 이슬람 신자를 겨냥한 폭력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음.
 - 일부 싱할라족 주민들은 이슬람 신자들이 불교 신자들을 개종시키려고 하고 불교 유적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 폭력사태를 일으킨 용의자 수십 명이 체포되고 두 개 마을에서 통행 금지령이 선포되었음.
 -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스리랑카 총리는 마을의 폭력 사태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가 엄격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음.
 - 이번 폭력 사태로 인해 외국 정부들은 스리랑카 여행 금지령과 통행 금지령을 내렸음.

□ 지난 3월 8일, 제프리 펠트먼(Jeffrey Feltman) UN 사무차장이 3일 간의 일정으로 스리랑카에 방문함.

- 펠트먼 사무차장은 시리아나 스리랑카 대통령,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와 다른 고위관리들과 회담을 가져 폭력 사태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음.
- 펠트먼 사무차장은 “현재 진행 중인 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려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음.
- 그는 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후 정부가 폭력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음.

국가비상사태 속에서도 경찰과 폭도들 간의 충돌이 계속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는 소셜 미디어 차단 조치까지 취함.

□ 스리랑카 정부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야간통금령이 내려진 중부 지역에서 밤새 경찰과 폭도들의 충돌이 계속됐음.

- 지난 3월 7일 통행 금지가 시행되는 동안 필리마타라와(Pilimathalawa) 마을의 한 레스토랑에서 약 50명이 침입해 레스토랑을 파괴했음.
- 이 레스토랑 주인은 무슬림 남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스리랑카 정부는 폭력 사태 확대 방지를 이유로 소셜 미디어를 차단하고 있음.

- 지난 3월 7일, 스리랑카 정부는 종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통신 앱을 차단했음.
- 스리랑카 규제위원회는 처음에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칸디 지역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도록 지시했음.
- 그 이후 소셜 미디어 사이트 및 Whatsapp과 Viber와 같은 통신 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지침이 전국적으로 임시 조치로 발급되었음.
-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폭력을 촉구하고 상황에 대한 생중계를 게시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음. **EMERiCs**

참고자료

Time, Anti-Muslim Attacks Continue in Sri Lanka Despite a State of Emergency, 2018. 03. 08
 Dailymirror, UN Political Affairs Under Secretary arrives in SL. 2018. 03. 08
 Aljazeera, Violence continues in Sri Lanka despite emergency decree, 2018. 03. 07
 Firstpost, Sri Lanka struggles to contain communal violence despite state of Emergency, 2018. 03. 07
 The Guardian, Sri Lanka declares state of emergency after communal violence, 2018. 03. 06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